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과 개선방안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 자신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가 한층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을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현황을 파악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및 국민의식을 기반으로 향후 장애인을 위해 우선시 해야 할 복지정책을 제시하였다.

金美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金成禧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 1. 들어가며

우리 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이 갖고 있는 의식이 전통적으로 부정적이어서 장애인을 보면 피한다거나 얼굴을 돌리는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의료적 측면 등에서 매우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회복과 평등한 사회생활을 위해 법과 제도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고,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

를』을 제정하였으며, 1993년에는 장애인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 1980년부터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거나 낮은 현실이다.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 자신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가 한층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이란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각종 기회를 제공받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

음을 인식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함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때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을 살펴보았다.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을 비교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식상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더 많고 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현황을 파악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및 국민의식을 기반으로 향후 장애인을 위해 우선시 해야 할 복지정책을 제시하였다.

## 2. 장애인구 현황

우리 나라의 장애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5년에는 92만여 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95.6만명, 1995년에는 105만여 명(전 국민의 2.35%)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표 1. 장애인구수 및 후천적 장애비율

(단위: 명, %)

	1985	1990	1995
장애인구수	915,000	956,000	1,053,000
후천적 장애인 비율	81.2	85.2	88.1
노령장애인 비율(60세 이상)	28.8	34.6	44.0

자료: 권선진 외,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장애 발생의 특징은 우선, 선천적인 문제보다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은 1985년에 81.2%, 1995년에는 88.1%로 전체 장애인 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구의 또 다른 특징은 노인인구의 증가가 장애발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장애인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1985년에는 전체 장애인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28.8%였는데 비해 10년 후인 1995년에는 44%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사고와 질병, 노령 등의 후천적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발생은 일반인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과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고 노령화를 겪고 있는 일반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대책의 마련은 장애인 자신뿐 아니라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즉,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 3.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1999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민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정도,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인지도, 장애인에 대한 평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태도, 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친구, 직장동료),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견해, 장애인 부양주체에 관한 견해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간<sup>1)</sup>에 장애인에 대한 의식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고, 아울러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1) 장애인에 대한 관심

##### (1) 장애인에 대한 관심

평소 장애인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반수 정도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장애인에 대한 관심정도를 장애관련 여부,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비교하였다. 장애관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장애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56.4%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40.8%만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조사대상자 중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응답자는 43.2%,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응답자는 56.5%임.

표 2. 장애인에 대한 관심

(단위: %, 명)

		관심 있다	보통이다	관심 없다	계(N)	$\chi^2$
전체		47.5	35.4	17.0	100.0(999)	
장애관련여부 (N=997)	관 련	56.4	32.0	11.6	100.0(431)	28.1***
	비관련	40.8	38.0	21.2	100.0(566)	
성 별 (N=999)	남 자	51.6	33.8	14.5	100.0(488)	7.4
	여 자	43.6	37.0	19.4	100.0(511)	
연령별 (N=999)	20대	34.4	43.2	22.3	100.0(273)	51.2***
	30대	45.3	41.0	13.7	100.0(278)	
	40대	56.3	32.8	10.9	100.0(183)	
	50대	59.4	25.6	15.0	100.0(133)	
	60대 이상	55.3	21.2	23.5	100.0(132)	
학력별 (N=994)	초등졸 이하	54.0	20.9	25.2	100.0(163)	29.0***
	중 졸 이하	47.6	35.7	16.7	100.0(126)	
	고 졸 이하	43.1	42.7	14.2	100.0(436)	
	초대졸 이상	50.9	32.7	16.4	100.0(269)	

주: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1999. 4.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간의 별 차이가 없 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연령 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 록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력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 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아주 높을수록 관심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장애와 관련이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 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경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고연령의 사람들은 자 신이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더 심각 하게 생각하고, 고학력자 및 저학력자도 이 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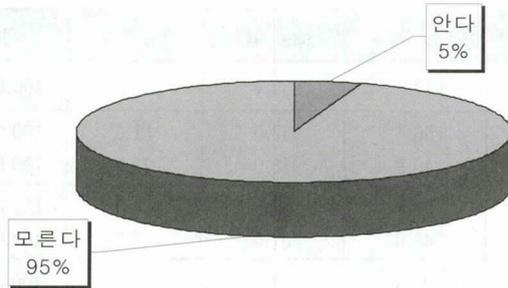
(2)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응답자의 반 정도 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러나 이들은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 본 결 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대부 분인 95%나 되었고, 5%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3) 장애인에 대한 평가

장애인의 특성 혹은 장애인들의 성향에 대한 평가는 전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그림 1. 장애인의 날 인지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1999. 4.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겠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장애인을 기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지 않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장애인을 불쌍하다고 인지하는 경우로 전체 응답자의 53.7%가 이에 동의하였다(표 3 참조). 흥미롭게도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보다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해서 더 불쌍하다고

표 3. 장애인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항 목	그렇다			아니다			x <sup>2</sup>	
	전체	장애 관련	장애 비관련	전체	장애 관련	장애 비관련		
긍정적 측면	불쌍하다	53.7	49.1	57.2	46.3	50.9	42.8	6.6**
	일반인과 같다	30.8	34.5	28.1	69.2	65.5	71.9	4.6*
	예의바르다	5.7	6.5	5.1	94.3	93.5	94.9	0.8
부정적 측면	자존심이 강하다	18.8	20.8	17.1	81.2	78.9	82.9	3.6
	소극적이다	10.7	11.1	10.2	89.3	88.9	89.8	0.2
	사귀기 어렵다	9.5	8.3	10.4	90.5	91.7	89.6	1.2
	적개심이 많다	9.4	10.2	8.8	90.6	89.8	91.2	0.5
	의존심이 강하다	4.1	4.9	3.4	95.9	95.1	96.6	1.4
자기 멋대로 한다	1.7	0.9	2.3	98.3	99.1	97.7	2.8	

주: \*\* p < 0.1, \* p < 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1999. 4.

보고 있다(49.1% 대 57.2%).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다는 응답은 전체의 30.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보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다는 데 더 많은 지지를 하고 있었다(34.5% 대 28.1%). 즉,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불쌍하거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인과는 너무 다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소수의 응답자들만이 내용에 동의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항목에 비해 장애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소극적이라는 점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장애인과의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각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응답자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성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의존심이 강하고, 적개심이 많고, 사귀기 어렵다는 점에는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정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인과 같다고 보고 있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과의 관계

### (1)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 지원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표 4.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단위: %, 명)

		자진해서 도와야	장애인이 요청하면	경찰관에 안내	모르겠다	기타	계(N)	$\chi^2$
전체		74.3	14.6	3.4	7.2	0.5	100.0(1000)	
장애관련여부 (n=998)	관 련	78.2	13.2	2.8	5.6	0.2	100.0( 432)	7.3
	비관련	71.4	15.5	3.9	8.5	0.7	100.0( 566)	
성별 (n=1,000)	남 자	75.3	13.9	2.7	7.2	1.0	100.0( 489)	7.2
	여 자	73.4	15.3	4.1	7.2	-	100.0( 511)	
연령 (n=1,000)	20대	71.2	16.8	4.4	6.9	0.7	100.0( 274)	28.3
	30대	75.5	15.8	1.8	6.1	0.7	100.0( 278)	
	40대	78.7	14.8	2.2	4.4	-	100.0( 183)	
	50대	73.7	15.0	3.0	7.5	0.8	100.0( 132)	
학력별 (n=995)	초등졸 이하	64.6	13.4	6.7	15.2	-	100.0( 164)	36.9***
	중 졸 이하	80.2	11.1	3.2	4.8	0.8	100.0( 126)	
	고 졸 이하	76.4	13.3	3.2	6.7	0.5	100.0( 436)	
	초대졸 이상	74.0	19.3	1.9	4.1	0.7	100.0( 296)	

주: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1999. 4.

자진해서 도와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이 요청하면 돕는다(14.6%), 모르겠다(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장애관련 여부별로는 양자간의 차이 없이 모두 자진해서 도와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볼 때도 역시 남자와 여자 모두, 그리고 연령별로 볼 때도 모든 연령층에서 자진해서 도와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학력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자진해서 돕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중졸의 학력을 가진 층이 타학력층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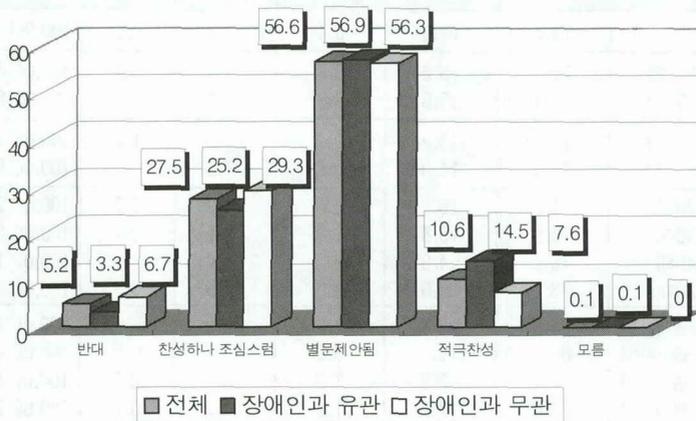
(2) 장애인 친구와 사귀는 것에 대한 견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장애인을 동료나 친구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나타난다. 일반인에게 가족이나 자녀가 장애인 친구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6%가 ‘별 문제가 안된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찬성하나 조심스럽다’고 한 사람들은 27.5%였고, ‘적극 찬성한다’는 사람은 10.6%에 불과하였다(그림 2 참조). ‘반대한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적극적인 찬성보다는 소극적인 동의의 수준으로 장애인과 사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장애인과 관계유무별로는 장애인과 관

그림 2. 가족이 장애인 친구와 사귀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주:  $\chi^2 = 19.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1999. 4.

표 5.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어려울 것임	좋음	적극 환영	모르겠다	기타	계(N)	$\chi^2$
전체		4.1	37.7	50.9	7.2	0.1	100.0(998)	
장애관련여부 (n=996)	관 련	3.0	35.0	55.9	5.8	0.2	100.0(431)	10.8
	비관련	5.0	39.6	47.1	8.3	-	100.0(565)	
성 별 (n=998)	남 자	3.7	37.3	52.7	6.4	-	100.0(488)	2.9
	여 자	4.5	38.0	49.2	8.0	0.2	100.0(510)	
연 령 (n=998)	20대	5.1	36.5	54.0	4.4	-	100.0(274)	32.4*
	30대	2.9	37.9	53.1	5.8	0.4	100.0(277)	
	40대	2.7	42.1	49.7	5.5	-	100.0(183)	
	50대	3.0	35.3	51.1	10.5	-	100.0(133)	
	60대 이상	7.6	35.9	41.2	15.3	-	100.0(131)	
학력별 (n=993)	초등졸 이하	5.5	35.0	42.3	17.2	-	100.0(163)	46.6***
	중 졸 이하	3.2	33.3	53.2	10.3	-	100.0(126)	
	고 졸 이하	5.3	36.6	52.9	5.1	0.2	100.0(435)	
	초대졸 이상	1.5	42.8	52.4	3.3	-	100.0(269)	

주: \*\*\* p < 0.001, \* p < 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1999. 4.

계가 있는 경우가 관계가 없는 경우보다 가족이나 자녀가 장애인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더 적극적이었고, 반대도 훨씬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응답자는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응답자보다 2 배 가량 가족이나 자녀가 장애인 친구와 사귀는 것을 찬성하였다(14.5% 대 7.6%). 즉,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 (3)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

일반인은 장애인들과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장애관련 여부 및 성별에 관계없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90% 이상이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환영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직장동료로서 장애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천을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장애인과 복지

#### (1) 장애인의 사회적 여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경쟁하기에 교육, 직

표 6.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여건(교육, 직업 상)

(단위: %, 명)

항 목	전체(N)	장애인과 유관	장애인과 무관	$\chi^2$
불리하다	44.9 (447)	37.8	50.4	22.4***
보통이다	31.6 (314)	32.2	31.0	
공정하다	23.5 (234)	30.0	18.6	
전 체	100.0 (995)	100.0 (429)	100.0 (566)	

주: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1999. 4.

업 등의 사회적 여건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불리하다(44.9%), 보통이다(31.6%)라고 하였고, 공정하다고 한 응답자는 23.5%에 불과하였다(표 6 참조). 특히, 장애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 장애인들의 사회적 여건이 더 불리하고, 더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무관한 일반인은 장애인이 직면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들이 이를 개척하고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의 생활비 지원에 대한 태도

장애인의 생활비는 누가 충당해야 하는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70.9%는 장애인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7 참조). 즉, 일차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책임은 장애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이건 관련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사람만이 국가가 대부분 지원을 해야 한다(17.2%)고 하여 국가는 부수적인 지원만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장애인 스스로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생활비 지원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가 대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국가의 지원을 많이 요구하였다.

(3) 장애인 부양주체

장애인의 생활비는 주로 장애인 스스로가 담당하고 부족분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한 데 반해서, 장애인을 누가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9%가 국가나 공공단체라고 하였다(표 8 참조). 다음으로 장애인 가족(31.6%), 장애인 자신(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 7. 장애인의 생활비지원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스스로 돈을 벌도록 함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함	국가가 대부분 지원해야 함	계(N)	$\chi^2$
전체		11.9	70.9	17.2	100.0(991)	
장애관련여부 (n=989)	관련	11.3	72.3	16.4	100.0(426)	0.7
	비관련	12.4	69.8	17.8	100.0(563)	
성별 (n=991)	남자	11.3	71.6	17.1	100.0(486)	0.3
	여자	12.5	70.3	17.2	100.0(505)	
연령 (n=991)	20대	15.0	75.1	9.9	100.0(273)	35.4***
	30대	10.9	71.7	17.4	100.0(276)	
	40대	14.7	69.2	17.0	100.0(182)	
	50대	10.7	72.5	16.8	100.0(131)	
	60대 이상	6.2	61.2	32.6	100.0(129)	
학력별 (n=987)	초등졸 이하	8.6	63.6	27.8	100.0(162)	18.8**
	중졸 이하	12.9	67.7	19.4	100.0(124)	
	고졸 이하	12.4	72.4	15.2	100.0(434)	
	초대졸 이상	12.7	74.5	12.7	100.0(267)	

주: \*\*\* p < 0.001, \*\* p < 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1999. 4.

표 8.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주체

(단위: %, 명)

주 체	전체	장애인과 유관	장애인과 무관	$\chi^2$
장애인 자신	9.1 ( 91)	10.2	8.3	11.2
장애인 가족	31.6 (315)	34.5	29.3	
국가나 공공단체	51.9 (518)	50.7	52.8	
모르겠다	7.4 ( 74)	4.6	9.5	
전 체	100.0 (998)	100.0(432)	100.0(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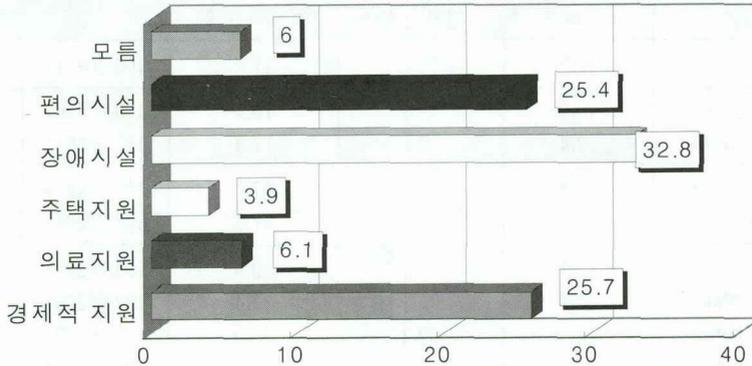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1999. 4.

장애인을 돌보는 주체는 생활비 담당자와는 달리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장애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보다 국

그림 3.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1999. 4.

가나 공공단체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약간 덜 느낀다는 점이다(50.7% 대 52.8%).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잠정적인 결론은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보호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생활 및 기타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4)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장애시설 설치(32.8%), 경제적 지원(25.7%), 편의시설 설치(2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여기서 가장 많이 지적된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재활

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의 설치율이 매우 낮다. 편의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에서의 설치율은 36.8%에 불과하다.<sup>2)</sup> 기존의 건물이나 설비들은 일반인만을 고려한 설계이어서 장애인에게는 매우 불편을 주고 있다.

#### (5) 장애인복지대책의 충분성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대책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7%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응답자는 7.9%에 불과해 장애인을 위

2) 박순일 외, 『장애인·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표 9. 장애인 복지대책의 충분성 여부

(단위: %, 명)

항 목	전체	장애인과 유관	장애인과 무관	$\chi^2$
충분하다	7.9 ( 79)	9.5	6.7	17.6***
보통이다	9.1 ( 91)	6.3	11.3	
충분하지 않다	68.7 (686)	73.4	65.2	
모르겠다	14.2 (142)	10.8	16.8	
전 체	100.0 (998)	100.0 (432)	100.0 (566)	

주: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1999. 4.

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대다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표 9 참조). 또한 이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한 사람도 14.2%나 되어,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과 관계 유무별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한 충분성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응답자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들이 복지대책의 불충분성에 대해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방안

##### 1) 장애인 및 장애인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방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극복하고 새로운 장애인관을 만들어 국민의식 속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복지 수준 의 향상으로 장애인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사업주 및 일반인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거나 낮은 현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일반인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나타낸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상에서 차이를 보여,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 불쌍한 대상이 기보다는 일반인과 같으며, 장애인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사회적 여건이 불리하지만 장애인이 극복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장애인 복지대책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장애인관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올바른 장애인관과 장애인 복지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제고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식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및 교육활동 전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대중교육을 전개하도록 한다.

(2) '장애인 먼저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조사결과 장애인에 대한 관심에 비해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일반인의 무관심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장애인의 날'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존재 및 권익보호를 알리는 '장애인의 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제고

조사결과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여건이 아직까지 장애인에게 불리하지만, 장

애인들의 자구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의 혜택이나 교육제도에 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극복방안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은 장애인들이 어떠한 복지대책을 필요로 하며, 이 대책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느냐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2)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복지 개선방안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장애인들의 사회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복지대책은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장애인과 무관한 사람보다는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장애인이나 이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복지대책이 더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의 열악성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생활은 장애인 스스로 책임지고 나머지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인의 부양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장애인복지대책 개선을 위해 다음의 장애인복지대책을 제안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대책 강화

대부분이 국가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국가는 부수적인 지원 역할만을 담당하고 생활의 주책임자는 장애인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최근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논의에서 제시되듯이, 그 동안 사회에서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의 근로권 확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애인 재활과 고용의 책임은 당연히 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본인이 생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활동은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장애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장애인 취업은 생존권 및 노동권에 속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회적 연대와 책임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법적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종업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인뿐 아니라 고용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에게 장애인의 생산성이나 성실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장애인 고용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2) 편의시설 및 장애시설 설치 확대

조사결과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장애시설 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들의 사회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시설 설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금전적 지원이 되고 있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최근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반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통합적 접근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제도와 시설의 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이외에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장애를 겪고 있다. 즉, 물리적 생활환경의 불편에서 오는 장애와 사회구성원들의 편견이나 불평등한 제도와 같은 비물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늦게나마 1997년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물리적 장애의 최소화를 위한 작업들을 벌이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올바른 인식은 장애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요인이 되지만,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실천의 장이 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일반인들의 올바른 인식 없이는 훌륭한 장애정책이라 하더라도 일선에서 시행하는데 장애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작업들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3)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당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 액수가 일인당 45,000 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생활이 어려운 자로 인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현재 1, 2급 장애인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생계보조수당의 지급 범위를 3급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자립유자금 지원대상도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들에게 확대하여 특별유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사회인으로서의 인식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의식제고와 복지대책 확충을 통해 장애인은 진정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로의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장애인의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앞에서 제시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복지